

정 병 헌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작품연구논문

RENEWAL

부활메세지의 현대적 형상표현 연구

2004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공예학과

최 지 영

논문개요

미술의 발생 과정은 종교적 감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구석기 시대의 원시인들은 자연 숭배의 형태로 주술적 성격의 동굴 벽화를 그리기 시작했고 고대사회에서도 모든 사회적 요소들이 종교적 형태로 표현되어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리스의 신전 등 모든 문화적 요소들이 종교적 감성으로 작품화되었다. 서양 미술 역시 그리스도교라는 종교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유럽 미술은 그 시작부터 그리스도교를 위해 존재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듯 근대 이후의 순수 미술이나 동양의 화조 산수화 등을 제외하고는 대개의 미술품이 종교 미술의 성격을 띠었다고 할 수 있다.

신(神)의 영광을 찬미하고, 문맹의 민중을 위한 도상(圖像) 미술로써 역할을 하고 또한 신자(信者)들의 종교 감정을 고양(高揚)시키고자 했던 그리스도교 미술의 목적은 현재에 와서는 작가의 작품 세계와 결부되어 좀더 자유로운 형식과 창의적 방법에 의해 광의(廣義) 적인 의미로 다양하게 보여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근간인 '예수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자아의 모습을 형상화하여 표현하고자 하였다. 부활의 성서(聖書)적, 교의(敎義)적 의미를 묵상(默想)하고 부활의 현재적 의미를 찾은 후 본인에게 있어서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를 다양하고 상징적인 소재로 나타내었다.

본인에게 있어 부활 신앙의 의미는 'renewal' 즉, 새로 태어나고픈 간절한 소망이다. 이러한 소망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위의 내용을 형상화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종교와 미술의 상관관계를 통해 서양 미술사의 근간을 이루어 온 그리스도교 미술의 의의(意義)를 알고 본 연구의 중심인 부활의 성서적, 신앙적 의미를 이해한 후 본인 작품에서 나타내려

고 하는 부활의 의미를 형태적, 색채적, 전례적 상징을 통해 표현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작품 전반적으로 쓰인 주요 염색 기법과 반응성 염료 및 그 외 작품 제작에 대한 설명으로 본 연구를 마무리 하고자 한다.

본인의 이러한 작업으로 인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그 의미가 각자의 삶에서 승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이다.

목 차

논문 개요

| | |
|--------------------|----|
| I. 서론 | 1 |
| 1. 연구 목적 | 1 |
| 2. 연구 범위 및 방법 | 2 |
| II. 본론 | 4 |
| 1. 종교와 미술 | 4 |
| 1) 종교 미술이란? | 4 |
| 2) 서양 미술과 그리스도교 미술 | 5 |
| 3) 현대 그리스도교 미술의 현황 | 6 |
| 4) 한국의 가톨릭 성(聖)미술 | 9 |
| 2. 이론적 배경 | 10 |
| 1) 부활의 성서적 의미 | 10 |
| 2) 부활의 전례와 상징 | 12 |
| 3) 부활의 현재적 의미 | 14 |
| 3. 작품 제작 및 분석 | 15 |
| 1) 작품 제작 | 15 |
| (1) 반응성 염료 | 16 |
| (2) 기법 연구 | 17 |
| 2) 작품 분석 | 20 |
| III. 결론 | 43 |

참고 도판

참고 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 【작품 1】 Renewal, 면(cotton), 반응성 염료, 인견사, 아크릴 봉
129×108 cm, 2003 20
- 【작품 2】 스피리투스 (Spiritus), 면(cotton), 반응성 염료, 인견사, Beads
127×80cm, 2003 23
- 【작품 3】 Festival of spring...Ⅱ, 면(cotton), 반응성 염료, 금색 구타, spangle
79×48cm, 2003 26
- 【작품 4】 Festival of spring... I, 면(cotton), 반응성 염료, 금색 구타, Beads
104×78cm, 2003 28
- 【작품 5】 레코르다미니 (Recordamini), 면(cotton), 반응성 염료, 금색 구타
아크릴 봉, 99×66cm, 2003 30
- 【작품 6】 에게이렌 (Egeiren), 면(cotton), 반응성 염료, 인견사
117×82cm, 2003 33
- 【작품 7】 He is still alive..., 면(cotton), 반응성 염료, 금색 구타
75×73cm, 2003 36
- 【작품 8】 四 十 日, 실크(silk), 산성 염료, 구슬
160×100cm, 2003 40

도 판 목 록

- (도판 1) 라스코 동굴벽화(부분), 기원전 15,000~10,000, 프랑스 도르돈느
- (도판 2) '그리스도' 이콘화, 6~7세기, 목판, 납화법, 84.5×44.3cm, 가타리나 수녀원, 시나이 반도
- (도판 3) '성모자상' 이콘화, 18세기, 목판, 템페라, 자코르스크의 세르게이, 러시아
- (도판 4) 「유스티아누스 황제와 시종들」, 547년, 모자이크, 산비탈레 성당, 앵스북쪽 벽, 라벤나
- (도판 5) 성 모자상, 12세기, 오텍 대성당, 프랑스
- (도판 6) 보티첼리, 「수태고지」, 1489년, 150×156cm 우피치 미술관, 피렌체, 이탈리아
- (도판 7) 엘 그레코, 「그리스도의 부활」, 1596~1610, 캔버스 유화, 275×127cm, 프라도 미술관, 마드리드
- (도판 8) 미켈란젤로, 「천지창조」, 프레스코, 시스티나 성당, 이탈리아 로마
- (도판 9) 마르크 샤갈, 「다윗왕」, 1951년, 캔버스 유화, 197×133cm, 작가소장
- (도판 10) 마르크 샤갈, 「부활제」, 1968년, 캔버스 유화, 160×160cm, 작가소장
- (도판 11) 로비스 코린트, 「대순교」, 1907년, 캔버스 유화, 250×190cm, 동부독일 미술관, 독일 레겐스부르크
- (도판 12) 조르주 루오, 「예수 그리스도」, 1937년, 캔버스 유화, 클리블랜드미술관, 미국
- (도판 13) 에밀놀데, 「그리스도의 매장」, 1915년, 캔버스 유화, 놀데미술관, 독일제빌
- (도판 14) 파울클레, 「새로운 천사」, 1920년, 캔버스 유화, 이스라엘 박물관, 이스라엘 예루살렘
- (도판 15) 루돌프 콜비츠, 「하느님의 사람」, 1954년, 철판화, 35×25cm
- (도판 16) 장밭, 「김대건 신부」, 캔버스 유화, 84×42cm

I. 서 론

1. 연구 목적

예수 부활의 의미는 그리스도 교인(敎人)에게 있어 신앙(信仰)의 중심이요 바탕이며,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한다는 것은 예수 부활이 갖는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이것을 자신의 삶에 반영함으로써 참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인 것이다.

예수 부활은 역사적, 교의(敎義) 적으로 꾸준히 해석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 가운데 부활의 현재적 의미를 묻는 일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 교인들에게 신앙의 길잡이가 되어 주고 있다.

사십일 간의 사순(四旬) 시기를 거쳐 부활에 이르는 전례(典禮)¹⁾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회(懺悔)와 속죄로 생활 전체를 혁신하고, 희망을 가지고 늘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본인의 작품은 이러한 부활의 현재적 의미가 좀더 극대화되어 본인의 삶에 반영되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기도에서 시작되었다. 수없이 반복되고 있는 잘못된 행실과 순간의 실수로 빚어진 많은 후회, 사람들과 주고받은 많은 상처, 지울 수 없는 기억(Trauma) 그리고 세상 풍파 속에서 변해만가는 일그러진 본인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이라도 모든 잘못을 뉘우치고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아픈 상처를 딛고 새롭게 태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조금씩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표현하려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으로 인하여 지금까지의 본인의 삶을 깊이 있게 성찰하고 앞으로

1) 가톨릭 교회 안에서 예수그리스도가 이룬 구원사건을 현재화시키는 예식

의 삶을 위한 새로운 마음가짐을 정비하여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희망하며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 들에게 부활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고자 한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근세 이전 전통적인 신학(神學)에서의 부활은 그저 그리스도의 신성(神性)에 대한 신앙과 십자가 구속(救贖)의 의미에 대한 신앙을 확인해 주는 기적(奇蹟) 정도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서는 계몽주의 및 합리주의의 영향으로 부활 사건도 사학(史學)적으로 신빙성 있게 증언되고 확인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크게 확산되었다. 그러나 예수 부활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사건이 아니며 '부활' 그 자체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부활 신앙의 의미를 성서(聖書)에 입각하여 그 내면적 의미를 묵상(默想)하고 깨달은 바를 본인의 삶에 비추어 작품으로 형상화하였다.

전반적인 작품의 주제는 부활의 의미를 'renewal', 즉 새로 태어난다는 기본 개념 안에서 출발하여 내 안의 중심인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개인적 감정 변화에 따른 심리상태, 성서 말씀을 통한 부활 메시지 등을 상징적 요소로서 표현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상징(象徵)'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써 성서와 가톨릭 교리 상의 다양한 상징들을 알아보고 작품 곳곳에 강하게 표출되어 있는 상징적 요소들을 개인적 의미를 담고 있는 주관적 상징과 성서적 의미를 담고 있는 객관적 상징으로 설명해 나아갈 것이다.

전반적인 작품 표현에 있어서는 원과 사각, 직선과 곡선 등을 구성하여 성서에 나타난 상징적 내용을 기호화함으로써 성상(聖像) 위주의 성미술 형식을 탈피하고 현대적 느낌의 성미술을 지향하였으며 작품의 소재 선택에서는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을 의도하여 주로 면(cotton)을 선택하였고 특정한 효과를 내기 위해 실크(silk) 소재를 사용한 작품도 있다.

염료에 선택에 있어서는 면에 견뢰도와 발색이 뛰어난 반응성 염료를 주로 사용하였고 다양한 염색 방법(크랙염, 흘치기염 등)과 실, 구슬, 아크릴 등의 오브제를 통하여 작품의 여러 가지 상징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섬유 미술의 다양한 세계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II. 본 론

1. 종교와 미술

1) 종교 미술이란?

원래 모든 예술은 '성(聖)스러웠다'고 한다. 신화적 시대에는 신적 존재에 의해 제시된 모델에 따라 어떤 도구를 만드는 것 같은 행위나 제단, 종교 상징, 신상(神像)등을 만드는 것과 같은 행위 모두를 창조의 개념으로 표현하였기 때문이다. 주술적, 종교적 개념이 강하게 지배되었던 당시에는 종교적 추상물의 속성을 예술적 표현이라는 매개를 통해 드러나게 하였다. 왜냐하면 종교적 추상물의 속성은 가시적인 형태를 빌려야 비로소 알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성예술품은 가시적인 것을 수단으로 하여 불 가시적인 것을 재현해 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²⁾

문자가 발달하지 못하고 어휘가 풍부하지 못했을 당시 상황을 추측해 본다면 성예술품은 모든 이에게 종교적 개념을 이해시키고 인간과 신의 만남을 체험케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성예술품 중 미술 분야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서 도르도뉴의 라스코동굴 벽화 <도판1> 나 그리스 신화를 소재로 한 작품 등 넓은 의미의 종교 미술에서부터 불교의 불상이나 그리스도교의 이콘화(ICON畵)³⁾ <도판2> 등이 그 시작이라 할 수 있다.

2) Mircea Eliade, 「상징, 신성, 예술」, 박규태 옮김 (서울 : 서광사, 1991), p.111.

3) 비잔틴제국에서 시작된 순교자의 초상화. 초기에는 납화법으로 그리다가 8세기경부터는 템페라 색채가 사용됨.

2) 서양 미술과 그리스도교 미술

고대 이후의 유럽 미술은 그 시작부터 그리스도교를 위해 존재했다. 4세기 초 콘스탄티누스가 로마의 패권을 장악한 후 그리스도교 미술은 우상(偶像)숭배를 반대했던 유대교의 영향으로 순탄할 수만은 없었지만 그리스도교를 새로운 종교로 받아들인 황제로 인해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었다. 성서를 읽을 수 없는 문맹자들이 성서의 내용을 알 수 있게 됨으로써 진실한 신(神)의 의도를 깨닫고 그 덕목을 따라 익힐 수 있게 될 거라는 교부(敎父)들의 주장으로 4~5세기경부터는 그리스도나 성인(聖人), 성 모자(母子)상 등을 재현한 성상(聖像) 그림들이 점차 자연스럽게 확산되어 갔다.

그리스도교 회화는 크게 두 종류의 시대로 나누어지는데 바로 상(象), 즉 '이미지(image)'의 시대와 '이야기 그림'의 시대로 나누어진다.⁴⁾ 성 모자와 성인들의 초상화 등을 그려 재현된 대상에 대한 끊임없는 '기억'과 '숭배'를 목적으로 한 동방 정교회에 이콘화와 교회 벽면을 장식한 성인들의 모자이크 <도판4> 등이 전자(前者)에 해당되는 시대로서 비잔틴 시대에 제작되었고 10~11세기에는 수도원을 주축으로 장식적 도상을 결들인 돈을 새김 장식이 선보이고 서유럽 최초로 환조(丸彫)의 성상(星像)이 출현하여 성모자상과 십자가상이 제작되게 되었다.

<도판5>

'이야기 그림'의 시대는 1200년경부터로 성인의 초상인 이콘화와 달리 특정 줄거리를 뛰어난 세부 묘사로 표현함으로써 역사화 형식을 취하게 된다. 보통 성당 안 제단(祭壇)을 장식하는 제단화(祭壇畵)로 그려졌고 교육용, 장식용 도상은 대규모의 벽화, 천장화로써 성당 안을 장식하였다. 고딕 시대에는 템페라(Tempera)⁵⁾기법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이후 프레스코(fresco painting)⁶⁾방식을 거쳐 유화

4) 홍진경, 「베로니카의 수건」 (서울 : 예경, 2001), p.11.

5) 템페라 : 안료와 매체를 혼합한다는 뜻의 물감. 계란의 흰자와 노른자, 고무나무 수액, 벌꿀 등을 바인더로 한다.

6) 프레스코 : 회반죽 벽에 그려진 일체의 벽화기법

(油畫)가 정착되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산드로 보티첼리(Sandro Botticelli 1445~1510)의 《수태고지(受胎告知)》(도판6), 엘 그레코의 (El Greco 1541~1614)의 《그리스도의부활》(도판7), 미켈란젤로(Michelangelo Buonarroti 1475~1564)의 《천지창조》(도판8) 등이 있다.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서는 예술가들이 개인으로서의 창작을 존중하고 종교 주제에 대한 자유로운 해석과 개성에 입각한 표현을 추구하였다. 이로써 미술은 종교 미술에서 벗어나 미술 본연의 성격을 찾으며 독립적인 성격으로 바뀌어 갔다. 또한 르네상스 말기에 일어난 종교개혁으로 가톨릭 교회를 이탈한 프로테스탄트(Protestant)가 도상 숭배를 부정하기 시작하였다.

가톨릭 교회는 이러한 상황에 대항하여 반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켜 그리스도교 미술을 다시 성화(聖化)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6세기 이후 근대 그리스도교 미술은 격하되어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예술성을 상실한 대량 생산품으로 전락하게 된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서 다시 종교 미술에 대한 반성이 일어 저명한 미술가들의 협력에 의한 열성적인 성스러운 미술 운동이 펼쳐졌으며, 그리스도교 미술은 여기에서부터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3) 현대 그리스도교 미술의 현황

신(神) 중심의 사상에서 인간 중심의 사상으로 돌아서기 시작한 르네상스 시대 이후 그림의 대상 또한 종교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변화하였고 정물, 풍경 등의 자연적 소재가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19세기 이후에는 표현 방법이 다양화되면서 대상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를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유럽 각지에서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과감하고 새로운 미술 운동이 다

7) 로마의 시스티나성당 천장에 그린 세계 최대의 벽화

양하게 전개되었는데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야수파(fauvisme)⁸⁾와 입체파(cubism)⁹⁾, 독일의 표현주의(Expressionismus)¹⁰⁾, 네덜란드의 신 조형주의(Le néo plasticisme)¹¹⁾, 이탈리아의 미래주의(futurism)¹²⁾ 등이 있다.

새로운 미술 사조가 생겨나면서 전통적 의미의 종교예술 또한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전통적인 종교 언어로는 현대의 종교경험을 표현하기에 어려움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현대 예술에서 '성(聖)'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말은 아니다. 단지 성을 쉽게 지각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¹³⁾ 중세 시대의 예술에서는 성의 표현이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었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작품의 형태와 주제 속에 감추어져 작가의 종교적 메시지가 은근히 전달되는 형식을 취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작가 자신의 신앙을 부정하여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단지 자신의 믿음을 작가 자신의 방식과 생각대로 작품에 표현함으로써 과거의 전통적인 종교 언어와 형식에 구속되지 않고 개인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좀 더 섬세한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작가와 작품을 살펴보면 표현주의 작가인 샤갈(Marc Chagall 1887~1985) 을 들 수 있는데 그는 성스럽고 신비스러운 세계를 당나귀(메시아적 상징의 동물)와 '신(神)의 눈', '천사'등을 등장시켜 성서적 종교성과 메시아(messiah)적 향수를 표현하였다(도판 9~10).

독특한 종교적 해석으로 충격을 준 작가로는 로비스 코린트(Corinth, Lovis 1858~1925)가 있다. 그의 1970년 작인 《대순교》(도판11)를 보면 11세기이래 전

8) 20세기초, 프랑스에서 일어난 혁신적인 회화운동. 마티스, 마르케, 루오등이 대표작가.
9) 1900년부터 1914년까지 파리에서 일어났던 미술혁신운동. 마티스, 피카소, 브라크등이 대표작가.
10) 르네상스 이래 유럽 예술의 전통적 규범을 떨쳐버리려 했던 20세기 예술 운동중의 하나. 반고흐, 고갱이 선두
11) 몬드리안이 입체파 이론을 더욱 철저히 정리해 끌어낸 기하학적 추상주의 이론.
12) 현대적인 속력, 운동감등으로부터 미를 창조해 내려는 시인 마리네티의 사상을 회화에서 실천한 운동.
13) Mircea Eliade, 전게서, pp.154-155.

통적인 기독교 회화의 도상인 '크루씨픽션'(Crucifixion)¹⁴⁾을 충실히 답습하면서도 그 모습에서는 거룩함이나 장엄함은 전혀 찾을 수가 없다. 희생자의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이 없고 무서운 고문의 공포와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은 신성(神聖)을 박탈당한 인간 자체로서의 예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강렬한 붓 터치와 색채, 노골적인 알몸의 묘사는 성화의 요소를 배제하는 듯 한 인상을 심어 준다. 관람자의 입장에서 이 작품을 본다면 이것은 지극히 반(反) 그리스도적이고 신성 모독적인 그림 같지만 사실 이 작품은 코린트가 아들의 견진 성사(堅振聖事-영세한 신자에게 성령과 은혜를 주어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해 베푸는 성사) 선물로 그렸다고 하니 어찌면 그는 성화적인 요소가 아닌 세속적인 표현으로 인간의 고통과 수치심을 나타내어 자신이 말하는 종교적 메시지를 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인간의 위선, 변뇌, 인생의 허무 등을 자연의 명암 대신 인간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명암 대비로 개성 있게 표현한 조르주 루오(Georges Rouault 1871~1958) 또한 20세기를 대표하는 작가로 자신만의 독특한 필체와 색감으로 성인의 초상, 예수의 초상을 개성 있게 선보였다(도판12).

이밖에 에밀 놀데(Emil Nolde 1867~1956), 파울 클레(Paul Klee 1879~1940), 루돌프 콜비츠 (Rudolf Kolbitsch, 1922~) 등도 자신들만의 표현 방식으로 종교적 감성이 묻어 난 훌륭한 작품들을 발표하였다(도판13~15)

4) 한국의 가톨릭 성(聖) 미술

1784년 조선에 천주교(天主敎)가 유입되면서 중국 선교사들에 의해 예수상, 십자가상(十字苦象), 묵주(默珠) 등이 들어오게 되었고 이것을 화공(畫工)들이나 일반 성도들이 비밀리에 모필화로 묘사 하면서 한국의 성(聖)미술이 시작되었다.

14)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

한국은 그리스도교 전파 이전에 무속 신앙이나 불교, 유교 등의 동양적 사상이 오래 지속되었던 관계로 서양의 성미술을 토착(土着)화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우리에게서 서양인의 모습을 지닌 십자가상이나 성모상보다는 단아하고 부드러운 인상을 지닌 우리의 모습을 닮은 한국적 심상의 성미술품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꼭 한복을 입거나 한국의 민속적인 요소가 들어가야만 성미술을 토착화하는 것이라 보는 것은 아니다. 근본적으로 성미술품이 예술성을 갖는다는 것은 작가 정신을 바탕으로 만들어 졌을 때 가능한 것이다. 작가 정신으로, 또한 가톨릭 신자로서 성미술품을 만들 때는 기능인으로서가 아니라 작가의 영혼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진실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이렇듯 한국인의 심성을 지닌 작가가 그리스도의 영성(英聖)안에서 자신의 기량껏 성실히 작품을 완성하였다면 그것이 바로 한국적인, 토착화된 성미술 작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성(聖) 미술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시기는 1920년대로 당시 대표 작가는 '장발'이다. 그는 1920년 《김대건 신부》(도판16)를 완성하였고 1948년에는 로마 국제 미술전에 《승리》라는 작품을 출품하기도 하였으며 1950년에는 가톨릭 미술가 협회를 창설하였다.

1954년에는 우리 나라 최초의 가톨릭 성미술전이 열리게 되었고 1970년, 서울 가톨릭 미술가 협회가 창립되면서 30년 동안 김세중, 이남규, 최종태를 회장으로 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였으며 1995년에는 한국 가톨릭 미술가 협회로 발전하여 지금까지 적극적인 성미술 연구와 전시를 꾸준히 하여 한국 가톨릭 미술계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2. 이론적 배경

1) 부활의 성서적 의미

부활은 인간의 경험 세계 안에서 인식 가능한 사건이 아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교의 신앙인들은 각자의 믿음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게 되고 곧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 교인들에 신앙의 근간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에 부활에 관한 설명은 성서적 측면에서 우선 그 의미를 찾아가게 된다.

『안식일 다음날 이른 새벽의 일이었다.....(중략).....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무덤에 가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이미 치워져 있었다....』 (요한 20:1)

예수께서는 주간의 첫째날인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다. 이른 아침, 향유와 향료를 가지고 예수의 무덤을 찾은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예수의 빈 무덤을 보게 된다. 이에 놀라 울던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와 만나게 되는데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하고 나서 뒤를 돌아다보았더니 예수께서 거기에 서 계셨다. 그러나 그분이 예수인 줄은 미처 몰랐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지기 인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분을 옮겨갔거든 어디에다 모셨는지 알려 주श्य요. 내가 모셔 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자 마리아는 예수께 돌아서서 히브리말로 “라쁘니”하고 불렀다.(이 말은 ‘선생님이여’라는 뜻이다).....』 (요한 20:13b-16)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를 바로 알아보지 못한다. 부활한 예수께서는 이제 단순

히 육체적으로 살아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러자 마리아는 바로 예수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된다. 그 이유는 부활에 대한 믿음은 사랑을 통하여 생기기 때문이다. 사랑을 품은 사람은 결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 한가지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를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아버지 하느님과 더불어 계신다. 하느님의 생명 자체 안에 계신 것이다. 하느님의 생명은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신비이고 그런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람과 모든 것 안에 현존하여 계시며 따라서 하느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부활하신 예수 역시 모든 사람과 모든 것 안에 현존하여 계시다는 뜻이다. 부활하신 예수를 직관하는 것은 사랑이며 사랑으로부터 출발하여 부활에 대한 선포가 생겨난다. 부활은 아버지의 품안에 계시는 예수 생명의 신비이자 공동체 생활 속에 살아 계시는 예수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¹⁵⁾

『안식일 다음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어떤 집에 모여 문을 모두 닫아걸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한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중략).....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숨을 내쉬시며 말씀을 계속 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 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 있을 것이다.”..... 』 (요한 20:19, 22-23)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가 평화를 기원하신다. 또한 그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다. 태초에 하느님께서 아담에게 숨기운을 불어넣어 생명을 주신 것과 같이 부활한 예수께서도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신 것이다. 이 창조는 끝없이 용서하는 화해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부활은 역사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활동을 이어받아 살아가는 그리스도 신자

15) 우리 신학 연구소, 「성서의 가르침」 (광주 : 도서출판 일과놀이, 1995), p.250-251.

공동체는 자신의 모습에서 예수의 현존(現存)과 활동을 볼 수 있게 증거(證據) 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뵈었소.” 하고 말하자 토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 자국에 넣어 보고 또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요한 20:25)

직접 보지 않고서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던 토마의 이야기 또한 많은 것을 일깨워 준다. 토마는 예수의 손의 못 자국과 옆구리에 상처에 직접 손을 넣어 보고서야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하고 외친다. 제자들 중에서 가장 늦게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되었지만 제일 먼저 부활하신 구세주의 신성(神聖)을 고백하게 된 것이다. 토마의 증거(證據)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간접 체험이 되어 주었다.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역사상의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며 토마의 의심이 그리스도인들의 의심이듯이 토마의 신앙 고백은 곧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었다.¹⁶⁾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요한 20:29)』

예수님께서 토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토마의 체험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직접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되었으며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믿음으로 인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16) 차동엽, 『카톨릭 신자는 무엇을 믿는가 2』, (서울 : 에우안젤리온, 2003), p.42.

2) 부활의 전례와 상징

가톨릭의 전례력(典禮曆)에서 부활은 가장 중요한 시기로 부활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40일간의 '사순(四旬) 시기'를 보내게 된다. 사순 시기의 전례는 허영과 위선에 가득 찬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듯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여 그것을 생활화하는 40일간의 기간으로 그 동안에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신앙과 인간적 성숙의 바탕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순의 시작인 '재의 수요일'¹⁷⁾에 모든 신앙인 들은 “사람은 흠에서 났으니 흠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라”(창세기 3:9)는 말씀과 함께 머리에 재를 얹게 되는 상징적인 표현 속에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지점을 생각하고 세례(洗禮)때의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되찾아 바른 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고 있는 것이 '사순 시기'이다.

'재의 수요일'로 시작한 사순 시기는 '성주간(聖週間)'에 이르러 절정을 이루는데 성주간은 성지 주일부터 시작되는 사순 시기의 마지막 한 주간이다. 성주간 전례는 우리 신앙 생활의 중심이 되는 전례로서 특히 성(聖) 삼일(三日)과 부활 성야(聖夜)의 전례가 그 핵심이다.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생전에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고 세상 사람들에게 증언(證言)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말씀과 행적들을 공동체 안에서 생활 속에 표현하고 생활화 한 것이 바로 전례인 것이다.

부활을 상징하는 것들로써 달걀과 어린양, 토끼와 백합이 있다. 부활 달걀은 부활절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겉으로는 죽은 듯이 보이지만 안으로는 생명이 깃들어 있음을 의미한다. '어린 양'의 고기는 구세주를 상징하는 것으로 중세 때부

17)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로 미사 중에 참회의 상징으로 재(성지 가지를 태운 재)의 축성과 재를 머리에 얹는 예식을 행하는데서 유래한다.

터 부활 축제 때 어린양의 고기를 먹었는데 오늘날에는 어린양과 토끼 모양의 과자와 빵을 구워 축성(祝聖)을 받고 함께 나누어 먹는다. 토끼는 눈을 뜨고 자는 동물이어서 죽음의 잠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또한 백합의 순백색은 깨끗함과 우아함으로 완전한 미와 선을 상징하여 예수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한층 더 하였다. 그리하여 부활 시기에는 제대(祭臺)를 장식하는 꽃으로 백합을 사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가톨릭에 색의 상징을 살펴본다. 우선 백색(White)은 기쁨과 영광을 의미하고 홍색(red)은 인애(仁愛)와 헌신(獻身)을 뜻한다. 녹색(Green)은 생명의 희열, 희망과 영생을, 자색(Violet)은 통회와 보속(補贖)을 말한다. 그리고 장미색은 기쁨과 휴식을 의미한다. 황금색 또한 큰 기쁨을 의미하여 전례상 가장 큰 행사의 사제의 제의에는 황금색 장식이 들어가게 된다. 본인의 작업에서는 통회와 보속을 뜻하는 자색과 생명과 희망을 상징하는 녹색이 주로 사용되었다.

이밖에도 성서(聖書)에서는 많은 상징적 소재를 찾아볼 수 있었다. 본 연구자는 특히 숫자의 상징에 관심을 갖고 작품의 내용에 많이 반영하였는데 대표적인 숫자의 상징을 간략하게 설명해 본다. 우선 '하나'의 의미는 한 분이신 하느님을 말한다. '셋'은 대단히 중요한 숫자로 하느님의 세계를 의미하며 '넷'은 하느님이 창조하신 자연, 전(全) 우주, 전세계를 표시한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세계를 나타내는 '셋'과 자연을 의미하는 '넷'을 합친 '일곱'은 지상과 천상의 결합, 하늘과 땅의 만남을 뜻하여 '완성'을 나타내게 된다. 본 작업에서 즐겨 사용한 8의 의미는 '새로운 출발'이다. 한 주간의 여드레째 날인 일요일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밖에 완전함을 의미하는 '12'와 고행(苦行)과 시련의 기간을 상징하는 '40'이 있다.¹⁸⁾

18) 미셸 크리스티안스, 「성서의 상징 50」, 장 익 옮김 (서울 : 분도출판사, 2002), p.41

3) 부활의 현재적 의미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방식은 자신을 희생하여 이웃에게 봉사하고 나눔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이타적인 삶의 모습이었다. 이러한 삶의 가르침은 예수 부활 후 제자들의 선교 활동과 복음 말씀 선포에 의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삶 속에서 구체화되며 재현되고 있다. 예수께서 실천하신 이타적인 삶의 방식은 예수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에 의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살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의 예수가 행했던 삶의 방식을 각자 자신이 속한 시대와 상황에 걸맞게 현재화 시켜야 하는 사명과 과제를 지니게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실천적인 삶의 방식을 가장 적극적으로 살아간 대표적인 인물로는 마더 테레사가 있다. 마더 테레사는 평생을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삶을 사셨다. 그녀가 보여준 이타적인 삶이란 자기 자신의 진정한 희생으로 자신보다는 남을 위하는 것이 바로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이기적인 삶이 팽배해진 지금의 이 사회에 무엇보다도 절실한 삶의 요건임을 보여주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봉사와 순종, 베품과 섬김의 삶의 방식으로 자기를 희생하여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면 “한 알의 밀 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라는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현재의 삶에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영광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는 곧 본인이 간절히 소망했던 ‘Renewal’ 즉,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염원으로 시작한 본 작업의 해답이며 앞으로의 삶에서 꾸준히 깨달아야 할 과제이다.

3. 작품 제작 및 분석

1) 작품 제작

작품을 제작하는데 있어 본 연구자가 원하는 전반적인 화면의 질감은 일상적인 편안함이었다. 그리하여 일반적으로 편안하고 따뜻하며 친숙하게 인식되는 면 소재를 사용하여 그 효과를 높였다. (작품의 특정 효과를 위해 실크를 사용한 작품도 있다.)

또한 염료의 선택에 있어서는 작품의 특성상 종교적인 색의 상징을 나타내기 위해 다양한 색채감을 필요로 하여 사용은 용이하지만 색감이 떨어지는 직접 염료 사용을 배제하고 개인적으로 생소하지만 색상이 선명하고 견뢰도가 뛰어난 반응성 염료를 사용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표현 방법에서는 작품의 메시지 전달을 보다 적극적이고 친근하게 하기 위하여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사용하였다. 전반적으로 납방염을 사용하면서 크랙(crack)염과 알코올(alcohol) 기법으로 분위기 연출을 하였으며 두 개의 그림을 교직의 형태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그밖에 소금물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재질감을 형성하였다. 또한 인견사, 아크릴 봉, 구슬 등을 사용함으로써 폭 넓은 섬유 미술의 세계를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1) 반응성 염료

반응성 염료(reactive dye)는 1956년 영국의 ICI사가 Procion 염료 삼원색계를 발매한 것을 시초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백 종의 염료가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온에서 염색되는 COLD 타입 염색형과 고온에서 염색되는 H-brand 및 날염(捺染) 전용의 3가지 형태로 생산되고 있다.¹⁹⁾ 알카리성 염욕에서 섬유와의

공유결합에 의해 염착(染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견뢰도가 높고 색상이 선명하며 침투성과 균염성이 우수한 장점 때문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염액을 만드는 방법은 상온 상태의 보통물(약 25℃)에 옅은 색(담색)인 경우는 물1ℓ에 염료10g 이하, 짙은 색(농색)인 경우에는 물1ℓ에 염료40~50g을 용해시킨다. 용해된 염액은 하루가 지나면 점차 분해되어 염색되지 않으므로 즉시 사용하여야 한다.

반응성 염료의 고착법으로는 소다회(Na_2CO_3)고착법, 프로시온 솔트(Procion salt)고착법, 증열처리 고착법 등 다양한 고착법 등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소다회 고착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소다회 고착법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소다회의 사용량은 물1ℓ당 염료 농도가 중~담색일 때 소다회도 물1ℓ의 염료 비율과 동일한 양을 용해시키고 중~농색 일 때는 30g의 소다회를 넣어 용해시킨다. 용해시킨 소다회를 천에 바르고 나서는 가능한 충분한 시간(2~4시간)을 들여 천천히 말려야 한다. 빨리 건조 될 때에는 반응 고착이 충분하지 못해 물빨래나 따뜻한 물로 씻으면 색상이 빠지게 된다. 염료를 반복해서 바를 경우에는 소다회 30g/ℓ 농도를 상한으로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30g/ℓ의 소다회 액을 발라 두면 염료액을 칠할 때마다 바르지 않아도 된다. 염액과 소다회 액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도 있는데 염액에 알칼리(alkali)가 들어가면 염료의 분해가 빨라지므로 혼합액은 20~30분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작업이 완료되어 완전히 건조시킨 후에는 흐르는 물에 소다회 분과 염색되지 않은 염료를 씻어 낸다. 이때 색이 빠지는 양이 줄어들면 즉시 따뜻한 물로 씻어 낸다. 1차 수세로 미 고착 염료나 약품을 제거하고 수세한 천은 표백제가 들어 있지 않은 세제로 soaping을 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 2차로 미 고착 염료와 약품이 제거된다. soaping은 끓일 수 있는 용기에 물을 채운 후 물 양의 약 3%정도의 세제를 희석시킨 다음 그 물을 가열하여 끓

19) 김준호, 「공예 염색 입문」 (서울 : 조형사, 1995), p.31.

기 시작할 때 수세한 천을 넣고 계속 가열하다가 다시 한번 끓기 시작할 때 천을 꺼내어 수세하고 건조시키면 작업이 완료된다.

(2) 기법 연구

종교적인 색채를 작업하다 보니 다양한 감정의 변화를 나타내기 위해 입체적이고 강렬한 배경 화면이 요구되었다. 그리하여 기법 또한 극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것들로 작업하였는데 그 기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알코올 기법 (Alcohol Technique)

일반적으로 알코올 기법은 실크 천 위에 실크용 염료(산성 염료 등)를 사용했을 시 가장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면과 반응성 염료로 작업하면서 알코올 기법의 최상의 효과는 기대할 수 없었지만 나름대로 본인이 원하는 형상인 씨앗이 뿌려져 있는 형태를 만들 수 있었다.

에틸 알코올 7 : 증류수 3 비율로 조제된 염색용 알코올에 원하는 색상의 염액을 섞어 자신이 원하는 크기대로 붓을 이용하여 그려 넣었다. 작은 원을 표현 할 때에는 스포이드로 떨어뜨리기도 하였다. 1차로 겹치지 않게 그려 넣은 후 자연 건조 혹은 건조기(Hair Dryer)를 이용하여 완전히 건조시키고 건조된 천 위에 반복하여 원의 형상을 겹치게 채워 나갔다. (Hair Dryer로 건조시키면서 반복 작업한다.) 작업이 끝나면 반응성 염료 후처리 과정으로 마무리한다.

▷ 주름 기법 (Drape Technique)

구겨진 천에 염료를 칠함으로써 천을 펼쳤을 때도 입체적인 구김이 살아 있는 기법이다. 실크와 면, 모두에 가능하며 일반적인 염료보다는 Silkiron 염료나 Javana 염료를 사용했을 때 최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준비된 천을 물에 적신 다음 물기가 너무 많지 않게 꼭 짤다. 꼭 짤 천을 유리판이나 비닐 위에 펼쳐 놓고 주름을 잡듯이 구겨 준 다음 어느 정도 다시 펴 준

다. 구겨진 천 위에 붓으로 염료를 골고루 칠 한 후 염색이 끝나면 Hair Dryer 를 이용하여 완전하게 건조시킨다. 건조가 끝나면 구겨진 천을 다리미로 펴 가며 열 고착을 하게 되고 고착이 끝나면 수세한 후 건조하여 마무리한다.

▷ 소금물 기법 (Salt Water Technique)

천에 발라진 소금물이 건조되면서 천 위에 결정 상태로 남아 그것이 방염제 역할을 하게 되는 소금물 기법은 소금의 농도와 온도에 따라 결정 크기를 조절 하여 크고 작은 점들이 찍히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물 1,000ml에 일반 소금 250g을 용해하여 소금물을 만든다. 만들어진 소금물을 약 30분간 방치하여 녹지 않은 소금이나 이물질을 필터에 걸러 제거한 후 염색 틀에 팽팽하게 고정시킨 천 위에 그 물을 골고루 칠한다. 따뜻한 곳에서 자연건조 시키면 소금 입자가 골고루 천 위에 결정 상태로 남게 되는데 추운 곳에서 건조할 시에는 입자가 굵고 커진다. 완전히 건조하여 입자가 원하는 크기대로 보이게 되면 염액을 칠하게 되는데 이때 건조기(Hair Dryer)로 건조 시켜 가면서 반복 작업하게 된다.

▷ 원통형을 이용한 흘치기 기법 (Arashi Technique)

천의 길이에 따라 가로, 세로 중 원하는 방향으로 양끝과 중간 중간을 전체적으로 흠질하여 당겨 준 후 주름을 잡는다. 주름 잡은 천을 원통에 감아 실로 힘껏 묶어 주고 아래로 당겨 주름을 잡는다. 이 상태에서 맑은 물에 충분히 담가 두어 적신 다음 여러 가지 색을 칠하거나 염액에 담가 염색을 한다. (실크에 산성 염료로 작업할 시 식초를 염색된 위에 충분히 넣어 준다.) 염색이 끝나면 완전히 건조시키고 묶은 것을 푼다.

2) 작품 분석

【작품 1】 renewal



면(cotton), 반응성 염료, 인견사, 아크릴 붓, 129×108cm, 2002

【작품 1】 Renewal

재 료 : 면(cotton), 반응성 염료, 인견사, 아크릴 봉

기 법 : 납방염, 알코올 기법, 혼합 기법

크 기 : 129×108cm

제작연도 : 2002

선(善)과 악(惡)의 사이에서 방황하고 갈등하는 모습은 인간이 지닌 가장 보편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다. 인간이기에 죄를 짓는 것이고 또한 인간이기에 그 죄를 반성하고 뉘우칠 수 있는 것이다. 본인 또한 신앙 인으로서 선(善)을 지향하며 살려고 노력하지만 인간이기에 거듭,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방황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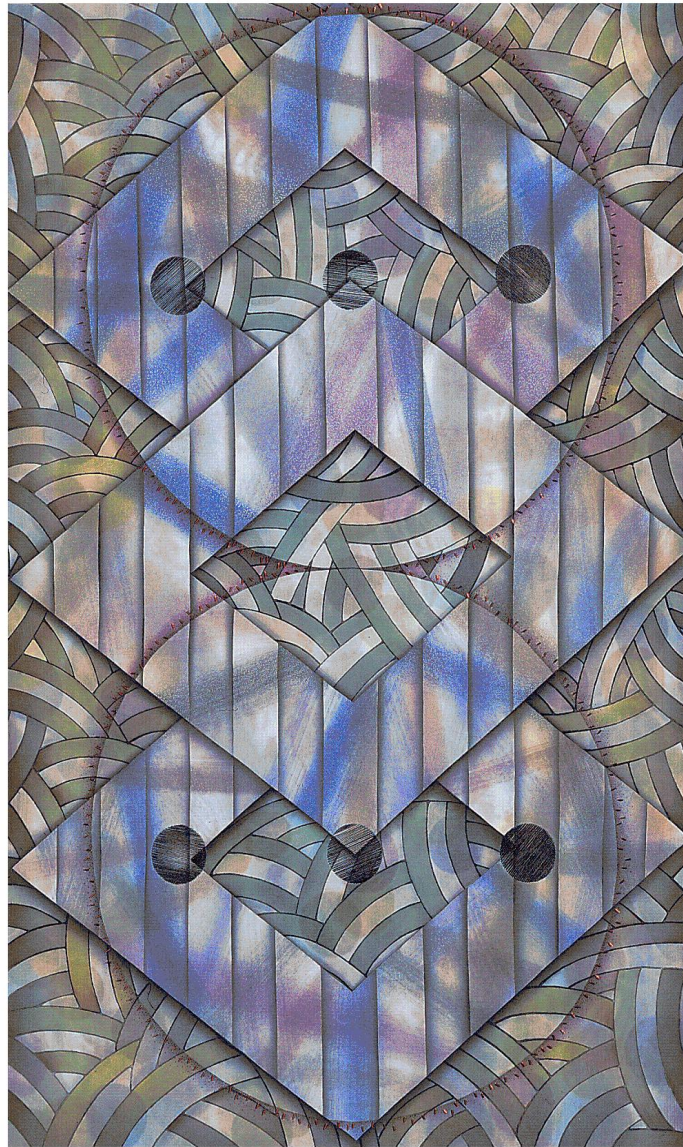
이 작품은 이러한 본인의 모습에서 벗어나 예수 님의 말씀 따라 진정한 참 삶을 다시 살아 보려는 자아의 몸부림을 표현한 것이다. 가슴에 품고 있는 칼날 같은 부정적인 심상이 사라지기 바라며 진정한 통회(痛悔)와 보속(補贖)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는 의지를 나타내었다.

세로로 그어진 선들은 하루하루를 의미하며 가운데 동그란 점들은 하느님의 말씀이자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 (성서에 말씀이 씨앗으로 비유되는 것을 동그란 형태로 나타내었고 8이 새로운 출발을 상징함으로 그 움직임도 방향성 있게 배치해 보았다.) 좌, 우에 보라색과 붉은 색을 나열함으로써 하루하루를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마음속에 죄가 사라져 사랑의 힘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이야기를 색으로 표현하였다. (가톨릭에서 보라색은 통회와 보속을, 붉은 색은 사랑을 뜻한다.)

작품의 배경은 알코올 기법(alcohol technique)으로 염색용 알코올에 적당한 농

도의 염료를 섞어 붓으로 그려 넣는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가운데 보이는 동그란 점들은 직경 5cm의 투명 아크릴 봉을 1cm로 절단하여 뒷면에 1cm지름의 아크릴 관을 붙여 그 안에 에폭시를 채워 나사에 고정하는 방식으로 부착하였으며 앞면에는 아크릴 물감으로 채색하였다. 바느질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작품 뒷면에 옷감 심지를 부착하여 작업하는 방법도 시도해 보았다.

【작품 2】 스피리투스 (Spiritus)



면(cotton), 반응성 염료, 인견사, Bead, 127×80cm, 2003

【작품 2】 스피리투스 (Spiritus)

재 료 : 면(cotton), 반응성 염료, 인견사, Bead

기 법 : 납방염, 알코올 기법, 홀치기 염, 혼합 기법

크 기 : 127×80cm

제작연도 : 2003

‘Spiritus’ 는 라틴어로 동력(動力), 활력(活力), 힘을 상징하는 성령(聖靈)을 뜻한다. 이 성령의 힘이 나의 의지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작품을 시작하였다.

작품의 배경 화면은 자아의 심상을 밭에 비유하여 형상화시킨 것이다.

『... 씨 뿌리는 사람이 뿌린 씨는 하늘 나라에 관한 말씀이다. 길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은 마음속에 뿌려지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날새게 달려드는 사탄에게 그것을 빼앗겨 버리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씨가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기꺼이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마음속에 뿌리가 내리지 않아 오래가지 못하고 그 후에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를 당하게 되면 곧 넘어지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리고 씨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그 밖의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 와서 그 말씀을 가로막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나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잘 받아들여 삼십 배, 육십 배, 백 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마르코 4:14-20)

매주 주일 미사(Missa)²⁰⁾ 시간에 일주일 동안의 나를 돌아보며 지은 죄를 반성하고 그 날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 맞이할 새로운 한 주를 열심히 살아보리라

20) 천주교에서 행하는 최대의 예배 의식

다짐하지만 위의 성서 내용과 같이 말씀의 씨앗은 내 가슴에 들어와 열매맺지 못하고 죽어 버리고 만다. 이 작품은 마음의 밭에 뿌려진 씨앗이 그저 묻혀 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와 'Spiritus', 곧 성령의 힘으로 꽃피워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겹쳐진 마름모 형상은 negative한 심상을 의미하고 그 위의 거친 직선들은 그 안에 복잡한 심정들이 회개(悔改)하는 과정임을 보여주고 있다. 커다란 원과 세 개의 작은 원들은 삼위일체의 하느님을 의미한다.(위의 원) 그 분을 닮아 나도 새로 태어나리라는 소망은 아래 원이 상징한다.

바탕 화면은 먼저 원통형을 이용한 흘치기 염색 방법으로 전체적인 문양을 표현한 후 알코올 기법으로 크고 작은 원들을 채우고 그 위에 구타(수성)를 이용하여 곡선을 그려 넣어 주었다. 마름모 안의 배경은 소금물 기법으로 소금 결정을 만든 위에 천이 마른 상태에서 붓질을 하여 거친 느낌을 표현하였다. 이 작품의 바느질 작업 또한 작품 뒷면에 부친 옷감 심지로 인해 편하게 작업할 수 있었다. 위에서 말한 꽃 피운다는 이미지(image)는 작고 기다란 원통 형태의 빨간(성령의 힘을 상징) 비즈(beads)를 박아 나타내 보았다.

【작품 3】 Festival of spring... II



면(cotton), 반응성 염료, 금색 구타, spangle, 79×48cm, 2003

【작품 3】 Festival of spring... II

재 료 : 면(cotton), 반응성 염료, 금색 구타, spangle

기 법 : 납방염, 알코올 기법, 흘치기 염, 혼합 기법

크 기 : 79×48cm

제작연도 : 2003

부활은 원래 '봄의 축제'였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신비에서 진정한 봄을 깨달았다. 생명은 죽음보다 강하여 싸늘한 무덤이 꽃피는 정원으로 변하였다. 부활을 통해 삶의 새로운 활기를 찾는 것이다. 부활의 길을 간다는 것은 삶의 온갖 장애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삶의 여유와 자유를 체험하기 위해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며 어둠에서 깨어나 참된 삶을 준비하는 것이다. 사순 시기를 지내며 예수 님의 고통을 통해 우리 자신의 상처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부활을 맞이하였을 때는 그 상처에서 피어나는 진정한 삶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날의 갈등과 상처들, 나를 비참하게 만든 좌절과 비애 등... 이 모든 상처들은 잊혀지고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밭에 묻어 그 위에서 새 생명이 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부활의 참 신앙이다. 이 작품은 말 그대로 마음의 상처가 묻혀진 밭에서, 상처를 이기고 피어나는 새로운 삶을 형상화 한 것으로 배경 화면은 자아의 심상을, 사각형의 형태들은 피어나는 형상을, 백합은 부활을 상징하고 있다. 전반적인 색감은 녹색 계열로 하여 생명, 희망의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화면의 대각선 방향을 흐르는 작은 원들은 말씀이자 곧 생명을 뜻하는 기운으로 생동감을 불어넣기 위해 스팅글(spangle)을 달아 표현하였다. 배경 화면은 흘치기와 알코올 기법으로 기본 문양을 깔았으며 바탕의 곡선들은 천이 건조된 상태에서 그려 넣은 것으로 사용한 염료는 독일 DEKA 社에서 만든 액체 염료이다. 이 염료의 후처리는 다림질로 열처리한 후 수세, 건조하여 마무리한다.

【작품 4】 Festival of spring... I



면(cotton), 반응성 염료, 금색 구타, Bead, 104×78cm, 2003

【작품 4】 Festival of spring... I

재 료 : 면(cotton), 반응성 염료, 금색 구타, Beads

기 법 : 납방염, 알코올 기법, 혼합 기법

크 기 : 104×78cm

제작연도 : 2003

이 작품 또한 부활을 '봄의 축제'라 정의한 것으로써 화면 전체에 걸쳐 있는 수직의 커다란 흐름은 하늘과 나를 연결하는 생명의 기운을 상징하며 그 색감은 가톨릭에서 '생명의 희열', '희망과 영생'을 상징하는 녹색을 사용하여 효과를 높였다. 떨어지는 듯한 사각형의 형태들은 새싹이 피어나는 형상을 나타낸 것이다. 희망찬 기운으로 새 생명이 자라나 꽃 피운 것은 부활의 상징인 백합꽃이며 8송이의 백합꽃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 이 꽃들이 피어난 바탕은 통회와 보속으로 승화된 상처들이 묻혀 있는 밭으로 수직으로 흐르는 생명의 기운에 의해 부활의 꽃이 피어난다는 설정이다.

작품 상, 하에 퍼져 내리는 듯한 이미지는 생명의 기운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 녹색 계열의 비즈(Beads)를 투명 실로 바느질하여 작업한 것이다. 실(thread)은 비즈를 꼬일 때 사용하는 실로 낚시 줄과 같은 형태인데 가늘고 질기며, 투명하여 바느질 작업에도 편리하게 사용하였다. 화면 중심에서 퍼져 가는 작은 원들은 알코올 기법으로서 염색용 알코올과 염액을 섞어 그것을 스포이드로 떨어뜨리고 건조기(Hair Dryer)로 건조시키는 작업을 반복하여 나타내었다. 그리고 백합의 수술에는 금색 구타를 칠하여 부활의 순간이 찬란하게 보이도록 표현하였다.

【작품 5】 레코르다미니 (recordamini)



면(cotton), 반응성 염료, 금색 구타, 아크릴 봉, 99×66cm, 2003

【작품 5】 레코르다미니 (recordamini)

재 료 : 면(cotton), 반응성 염료, 금색 구타, 아크릴 봉

기 법 : 납방염, 크랙염, 혼합 기법

크 기 : 99×66cm

제작연도 : 2003

레코르다미니(recordamini)는 라틴어로 “예수의 말씀 안에서 생명을 찾았다” 는 뜻이다.

마태오 복음서에는 부활을 큰 지진으로 묘사한다.

『안식일이 지나고 그 이튿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하늘에서 주의 천사가 내려와 그 돌을 굴러 내고 그 위에 앉았다....』 (마태 28:1-2)

루가 또한 사도행전에서 부활이 어떻게 우리 삶에서 지진으로 일어날 수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다.

『바울로와 실라가 깊은 감옥에 갇혀 묶여 있었는데 한밤중, 그들은 하느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다른 죄수들은 그 기도를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곧 문들이 열리면서 모든 이의 사슬이 풀렸다.』 (사도 16:25-26)

이것은 우리 삶에서도 체험할 수 있는 부활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우리는 종종 ‘공포’와 ‘고독’, 그리고 ‘우울’의 감옥에 갇혀 버린 느낌을 받는다. 때로는 삶에 고통 속에서 탈출할 수 없는 감옥을 만들어 스스로 감금되어 안주하기도 한다. 항상 자신의 잘못을 탓하는 완벽 주의와 강박관념, 타인에게 좋은 이미지만을 심어 주기 위한 자기 도취에 빠져 스스로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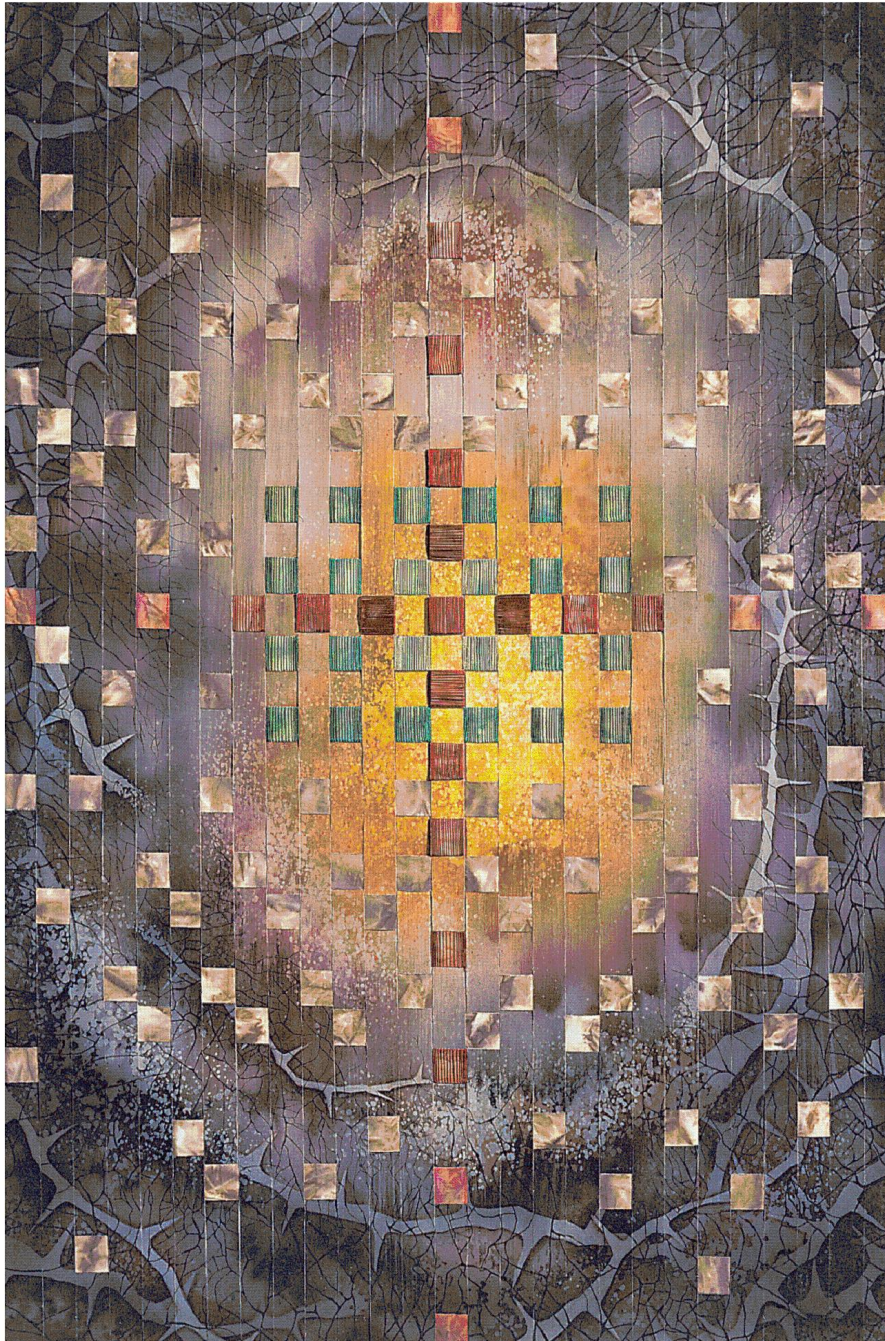
있다. 이렇듯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가두는 감옥에서 나와 묶여 있는 모든 것들을 하느님의 자비하신 손안에 맡기고 하느님을 찬미한다면 우리 안에서도 땅이 진동하여 삶을 가로막은 장벽들이 흔들리고 허물어져 공포와 억압과 마비의 사슬에서 풀려나 진정한 자유를 느끼게 될 것이다.

이 작품에서는 허물어져 가는 부정적(negative) 이미지와 피어나는 부활의 기쁨을 대조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두 그림을 교차하는 방식을 연구해 보았다. 첫 번째 그림에는 음울한 분위기를 상징하는 어둡고 탁한 보랏빛 배경을 주름 기법(Drape Technique)으로 표현하고 그 위에 바틱(batik)으로 고통과 억압을 상징하는 가시관을 그려 넣었다. 또 다른 그림에는 부활을 상징하는 백합이 고통을 이기고 찬란히 피어나게 되는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 녹색과 황색의 배경에 뿌리기 기법을 사용하여 생동감을 더하였고 흰색의 액체 염료로 백합의 순수함을 돋보이게 하였으며 꽃의 중앙에 금색 구타를 사용하여 부활의 영광이 느껴지도록 시도해 보았다.

두 그림이 완성된 후, 각 그림의 뒷면에 옷감 심지를 부착한 뒤 원하는 간격으로 한 그림은 세로, 다른 그림은 가로로 재단하여 수직, 수평이 맞게 중심에서부터 짜기 시작하였다. 더 중심이 되는 그림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하나를 끼워 넣어 주는 형식을 취하면 쉽게 작업할 수 있다. 그림 중앙에 위치한 투명한 아크릴 봉은 큰 움직임의 원동력이 된 '말씀'을 상징한다. 말씀은 곧 씨앗으로 비유될 수 있으며 내 안의 중심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으로 인해 어둠이 사라지고 부활의 꽃이 피게 되었다는 설정이 세워지는 것이다.

투명 아크릴 봉의 뒷면에는 지름1cm, 높이 1.5cm의 아크릴 관을 부착하고 그 안에는 빨간색의 안료를 섞은 에폭시를 채운 후 판넬 뒷면에서 구멍을 뚫어 나사못으로 고정시켰다. 투명한 원안으로 보이는 빨간색의 작은 원은 말씀의 씨앗 속에 숨겨진 하느님의 커다란 힘을 의미하고자 하였다.

【작품 6】 에게이렌 (Egeiren)



면(cotton), 반응성 염료, 인견사, 117×82cm, 2003

【작품 6】 에게이렌 (Egeiren)

재 료 : 면(cotton), 반응성 염료, 인견사

기 법 : 납방염, 크랙염, 혼합 기법

크 기 : 117×82cm

제작연도 :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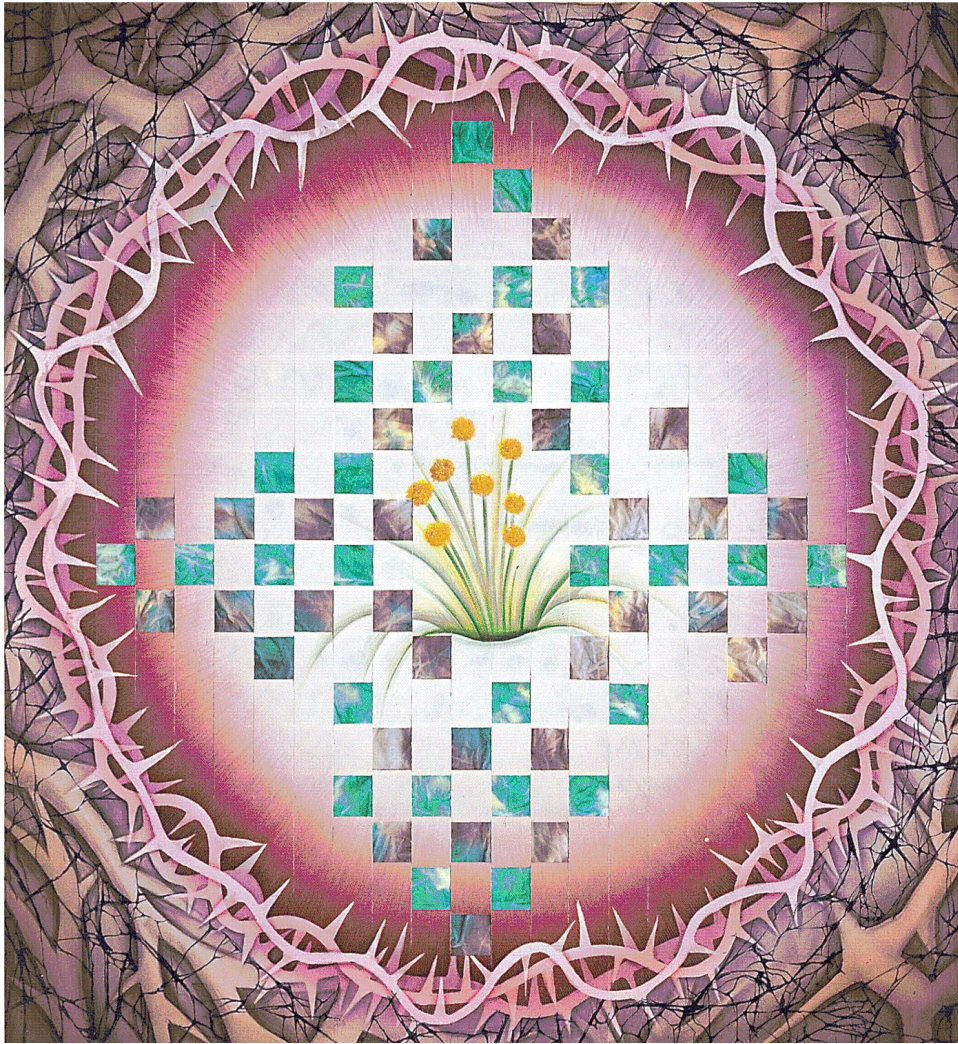
“일어나다”라는 뜻의 그리스어 ‘에게이렌’(egeiren)은 예수의 부활을 의미한다. 부활은 ‘일어남’과 관계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체념, 실망과 상처로 점철된 무덤과 같은 현실에 그냥 머물러 있으려 한다. 삶이 두려워 적당히 현실에 적응하며 사는 것이다. 일어난다는 것은 곧, 내가 다칠 수 있다는 뜻이 된다.²¹⁾ 일어남은 곧 삶과의 대면을 의미한다. 이것은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나의 삶을 나 스스로가 일어나 변화시키려는 노력, 긴 어둠을 뚫고 밝은 세상으로 나오기 위한 과정은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위해 세상을 향한 몸부림을 치는 갓난아이의 고통과 같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은 차라리 누워 있으려 한다. 이 작품을 통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다. 일어나 부활을 맞이하라고.....

공포와 체념, 고통과 상처로 상징되는 무덤 같은 현실은 작품 외곽으로 보여지는 검은색의 크랙(crack)과 어두움, 그리고 가시나무로 표현하였다. 긴 터널을 지나 저 멀리 보이는 밝은 세상은 화면 중심부에 빛을 상징하는 황색으로 나타내었고 빛의 표현은 뿌리기 기법으로 하여 부활의 동(動)적인 느낌이 느껴지도록 하였다. 이 작품 또한 두 개의 그림을 교차하는 방식으로 작업하였는데 【작품 5】에서는 두 그림이 전체적으로 교차되는 것에 비해 【작품 6】에서는 중심 그림을 작업 한 후 뒷면에 옷감 심지를 부착하고 세로로 칼집을 내어 준 후 부분

21) 안셀름 그윈, 「부활의 기쁨 100배 맛보기」, 정하돈 역 (서울 : 분도출판사, 2002), p.27.

적으로 이미지를 끼워 넣는 방식을 취하였다. 끼워 넣어진 이미지는 갈색, 녹색, 적색의 세 가지 색을 각기 주름 기법 (Drape Technique)으로 염색한 후 천의 뒷면에 옷감 심지를 부착하고 가로로 재단하여 필요한 위치마다 투명실로 바느질하여 부착하였다. 그리하여 보여지는 작은 사각형들은 부활의 원동력이 된 '말씀의 씨앗'을 상징하는데 갈색의 씨앗은 뿌려지되 생명을 피우지 못한 것들이고 녹색의 씨앗은 생명의 기운을 띄고 있는 것이며 적색의 씨앗은 생명을 얻어 일어나는 형상을 십자가의 형태로 표현해 보았다. 십자가는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 주며 관계가 곧 생명임을 나타내 보여준다. 녹색의 씨앗과 적색의 씨앗은 생명력과 운동감이 느껴지도록 하기 위해 인견사를 염색된 천에 감아 주는 기법 (Lapping)을 사용하였는데 녹색 씨앗은 한 겹의 천에 3가지 색 톤(ton)으로 감싸 주었고 적색 씨앗은 가운데로 갈수록 두 겹, 세 겹 겹치어 정 가운데가 가장 튀어나오도록 한 후 실을 감아 주었다.

【작품 7】 He is still alive...



면(cotton), 반응성 염료, 금색 구타, 75×73cm, 2003

【작품 7】 He is still alive...

재 료 : 면(cotton), 반응성 염료, 금색 구타

기 법 : 납방염, 크랙염, 혼합 기법

크 기 : 75×73cm

제작연도 : 2003

『 ... 그리고 예수의 옷을 벗기고 대신 주홍색 옷을 입힌 뒤 가시로 왕관을 얹어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린 다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떠들며 조롱하였다. 그리고 그에게 침을 뱉으며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때렸다. 이렇게 희롱하고 나서 그 겹옷을 벗기고 예수의 옷을 도로 입혀 십자가에 못박으려 끌고 나갔다...』(마태 27:28-31)

권력의 온갖 표지인 주홍색 옷과 가시관, 갈대 지팡이, 경배로 예수께서는 놀림거리가 되신다. 그러나 그 옷을 벗고 헛된 왕권을 내팽개친 예수께서는 당신 자신을 참된 왕으로, 즉 당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 목숨을 바치는 분으로서 드러내 보이신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자 실망한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두려운 맘으로 숨어 지냈다. 그러던 그들이 차츰 그분의 십자가에서 사랑을 알았고 그분의 처참한 죽음에서 생명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다.

『 ... 안식일 다음날 이른 새벽의 일이었다.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무덤에 가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이미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달음질을 하여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가서 “누군가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 갔습니다. 어디에다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알려주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곧 떠나 무덤으로 향하였다..... 안식일 다음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어떤 집에 모여 문을 모두 닫아걸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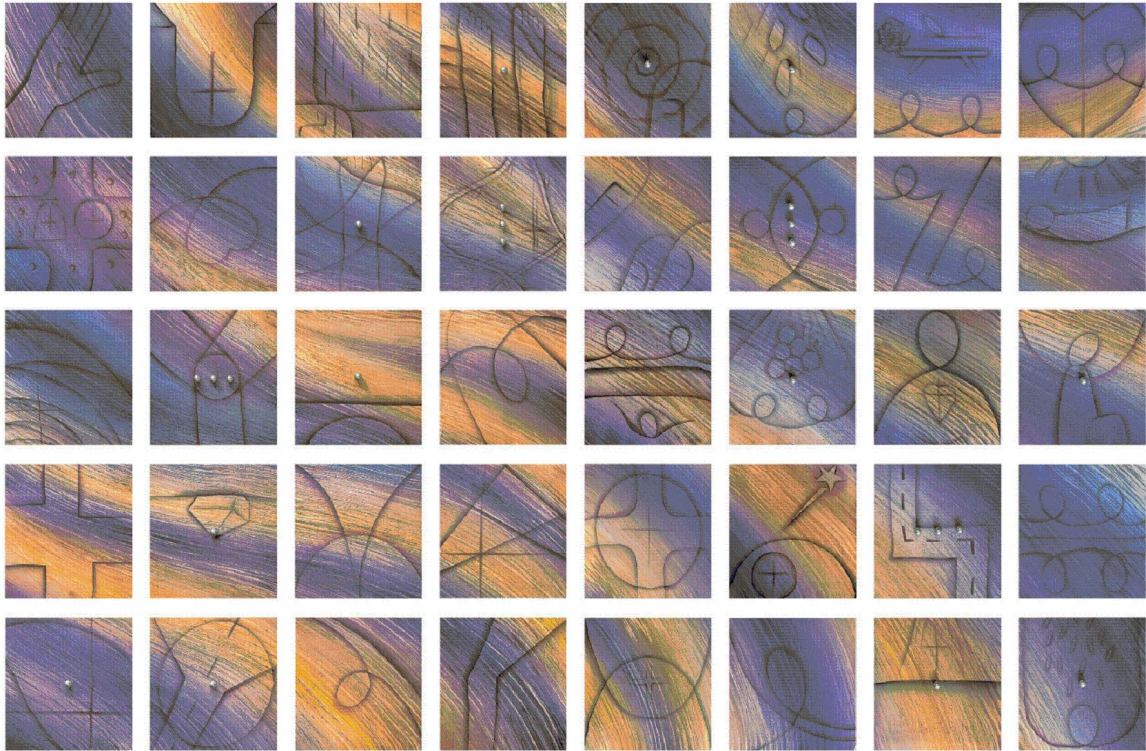
들 한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요한 20:1-3, 19)

죽음으로 소멸된 인생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 생물학적 생명이 끝난 곳에서 영생을 찾으려는 사람은 부활을 체험할 수 없다. 부활과 영생은 ‘죽음 후’가 아니라 ‘죽음 전’, 이승의 문제다. ‘죽기 전에 죽으면 죽을 때 죽지 않는다.’는 말은 살아 있는 인간에게 하는 말이다. 그리스도 인이 부활을 믿는 것은 죽은 후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죽기 전에 부활의 몸으로 살기 위해서이다. 곧 현실에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예수께서 몸소 실천하시어 인간에게 보여준 참된 사랑이며 부활의 의미이다. 【작품 7】에서 보여주고자 한 것은 이런 부활의 참된 의미이다. 예수께서는 우리 마음에 살아 계시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다. 인간들의 미움과 증오와 잘못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한다.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조롱했던 병사들의 모습은 곧 현재의 우리를 의미한다. 작품 외곽(brown tone)에 얽혀 있는 가시들은 인간의 잘못된 모습을 형상화 한 것이다. 가운데 가시관 또한 예수님에게 씌워졌던 가시관과 같은 의미이다. 이런 고통 속에서 어둠을 이기는 사랑의 힘(red tone)으로 예수께서는 부활하셨다. 찬란하게 피어나는 백합의 형상은 부활을 의미하는데 꽃잎의 형상을 녹색의 씨앗 형태로 표현하여 생명이 지닌 에너지(energy)가 느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화면 외곽의 표현 기법은 크랙(crack)기법을 사용하였고 가시나무와 가시관은 납방염으로 그려 넣었다. 가운데 꽃의 형상에서 수술 부분은 납방염 후 마른 상태에서 액체 염료로 묘사한 것이며 꽃잎 부분은 다른 천에 주름 기법(Drape Technique)으로 염색한 후 뒷면에 옷감 심지를 부착하고 화면 가운데 세로로 놓여진 칼집에 꽃잎의 형상대로 엮어 섬유 접착제로 고정시켰다. 하지만 접착제 사용은 잘못된 것이었다. 왜냐하면 접착제가 흰색 화면에 비취져서 얼룩지

게 보여졌기 때문이다. 두 천을 엮고 고정시킬 때는 【작품 6】에서처럼 투명 실로 고정시키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었다.

【작품 8】 四十日



실크(silk), 산성 염료, 구슬, 160×100cm, 2003

【작품 8】 四 十 日

재 료 : 실크(silk), 산성 염료, 구슬

기 법 : 납방염, 혼합 기법

크 기 : 160×100cm

제작연도 : 2003

성서에서 나타나는 40이라는 수(數)의 의미는 참회와 속죄로 우리 생활 전체를 혁신하고 살아 계신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 합당한 준비를 하는 기간의 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가톨릭 전례력(典禮曆)에서는 부활 축제를 준비하기 위한 40일간의 기간을 '사순 시기'라 칭하여 이 시기 동안에는 외적으로 소극적인 준비인 단식(斷食)과 금육(禁肉)을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 보며 그들을 위해 자선을 할 것을 권고하고 내적 준비로는 회개와 속죄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쇠신하고 하느님의 은총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작품에서는 실제로 본 연구자가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그날 그날의 복음(福音)말씀을 읽고 묵상한 후 그 내용을 형상화 시켜 40장의 그림으로 완성한 것이다. 전체적인 화면 구성은 사순 기간 동안 참회하고 속죄하는 심상의 변화로써 청색, 자색, 적색의 색의 흐름과 곡선의 형태의 흐름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인조 진주 형태의 구슬을 달았는데 이는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정표로서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부활의 영광에 기쁨을 맛보게 될 거라는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다.

유일한 실크(silk) 작업으로서 심상의 변화에 흐름이 크게 움직이면서 빛을 받기 위해 비교적 얇고 가벼운 실크를 선택하여 산성 염료로 염색하였다. 사각

틀에 투명 아크릴 판을 부착한 후 염색된 그림을 매어 작품에 빛이 비추졌을 때 화면이 살아나는 효과를 기대해 보았다.

Ⅲ. 결 론

본 연구는 현실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에 다시 태어나고픈 자아의 비현실적인 소망에서 시작되었다. 표면적 의미로 '부활'의 상징과 개인적 소망이 일치하는데 초점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부활을 추적(追跡)하여 자아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해답을 찾아 나선 것이다. 그러나 작품을 진행하면서 연구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음을 깨달았다.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부활 신앙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예수를 따르는 것에서 시작된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십자가'란 본인이 그토록 버리고 싶어했던 '삶의 무게'로서 고통스러운 현실과 잊고 싶은 상처, 헤어날 수 없는 현실 등을 말한다. 그러므로 부활 신앙의 시작은 그 모든 것을 버린 후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무게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사고의 전환으로 삶의 무게감을 줄인 후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성실히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사실 이것을 깨닫게 된 것 하나만으로도 본인의 연구의 성과는 있었다고 본다. 자기를 부정하고 헛된 망상을 꿈꾸며 불만스럽게 살아왔던 자아는 본 연구를 통해 진정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 질문의 답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찾음으로써 인간 삶의 필연적 요소인 '참 사랑'을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부활'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죽는 법'을 배워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죽는법이란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부모의 심정처럼,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모든 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희생하여 사랑을 실천해 나간다면 참된 '죽음'의 의미를 깨달아 살아 있는 동안 '참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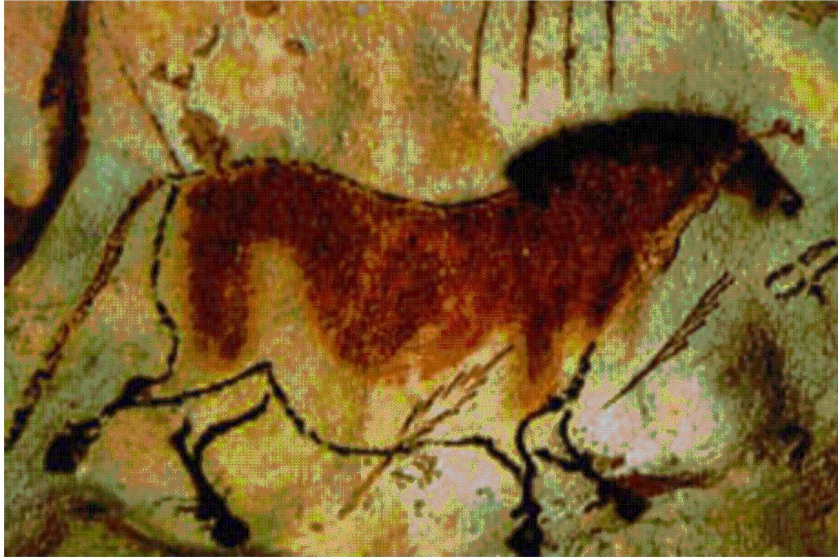
부활은 죽은 자의 소생(蘇生)이 아니라 살아 있는 자를 살리는 메시지이다. 살아 있는 자들이 남을 위해 자신이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어 서로 사랑하고 진정한 생명의 의미를 깨달아 모두가 다시 태어나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간절한 소망일 것이다.

“그리스도가 백 번을 부활해도 내가 부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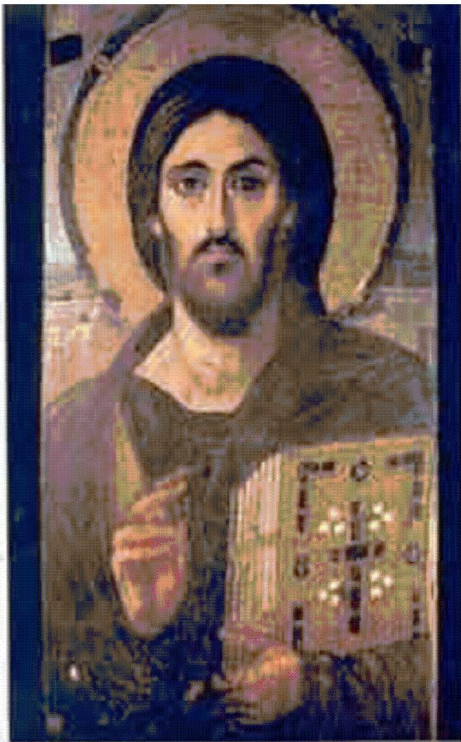
이 말은 독일의 속담으로 본 논문을 마무리하는 연구자에게 실천적 깨달음이 없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헛되어 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이라 여겨진다. 본 연구의 작품들은 이를 실천하기 위한 첫 걸음이고 다시 태어나고자 했던 자아의 간절한 소망은 부활하신 예수그리스도를 따라 끊임없는 사랑으로 성실히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이루어 질 수 있는 현실 가능한 이야기가 되었다.

희망컨대 본 연구의 결실인 작품들 속에 조금이나마 부활의 참된 메시지가 녹아들어 이를 보는 모든 이들이 이를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더불어 본인이 가진 재능인 섬유 작업을 통해 하느님의 말씀을 깨닫고 작품을 통해서 보는 이에게 부활의 참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다는 것에 신앙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섬유 미술 분야에서도 성미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본인 또한 염색 작품을 통하여 복음 말씀을 선포하는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참 고 도 판



(도판1) 라스코 동굴벽화(부분)



(도판2-1) '그리스도' 이콘화



(도판2-2) '성모자상' 이콘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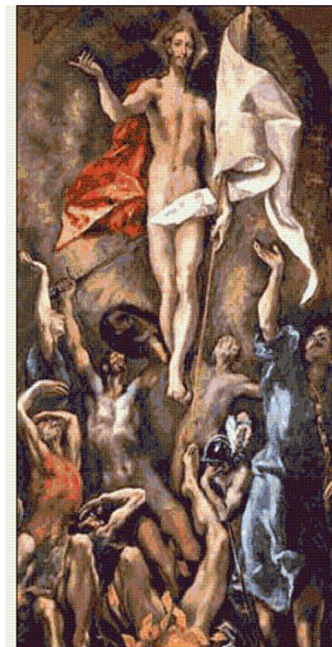
(도판4-1) 성 모자상



(도판3) 성인 모자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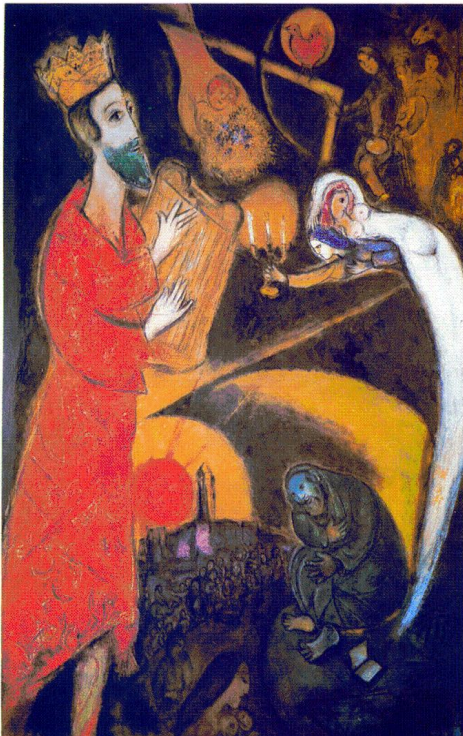
(도판5) 보티첼리 「수태고지」



(도판6) 엘 그레코 「그리스도의 부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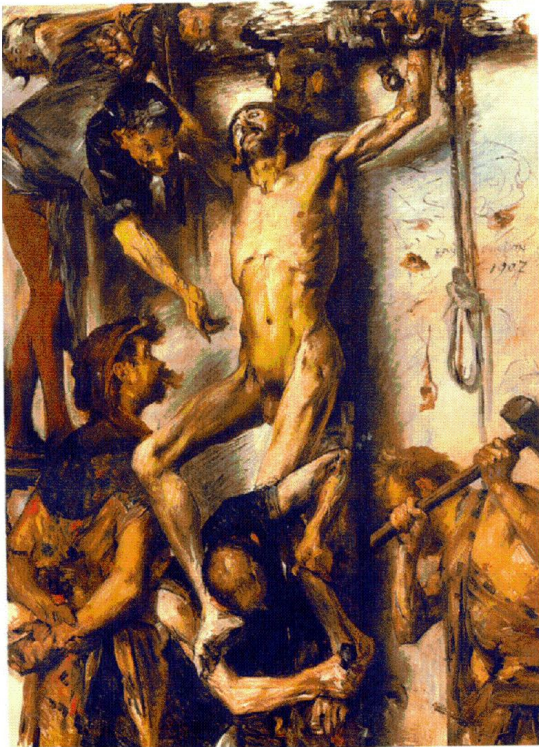
(도판7) 미켈란 젤로 「천지창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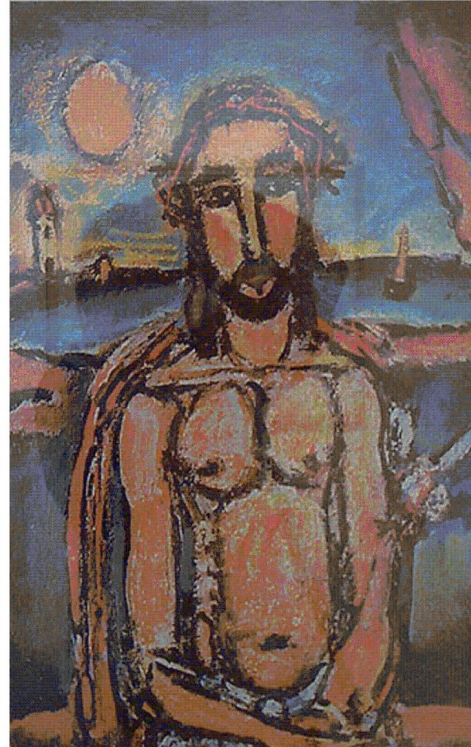
(도판8-1) 마르크 샤갈, 「다윗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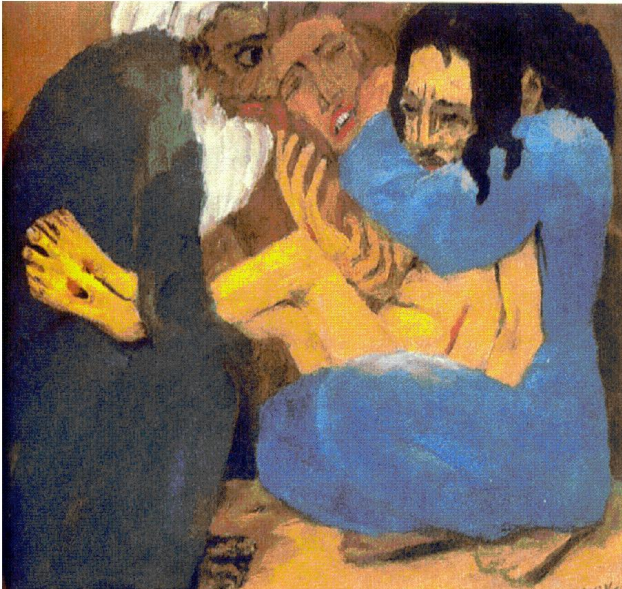
(도판8-2) 마르크 샤갈, 「부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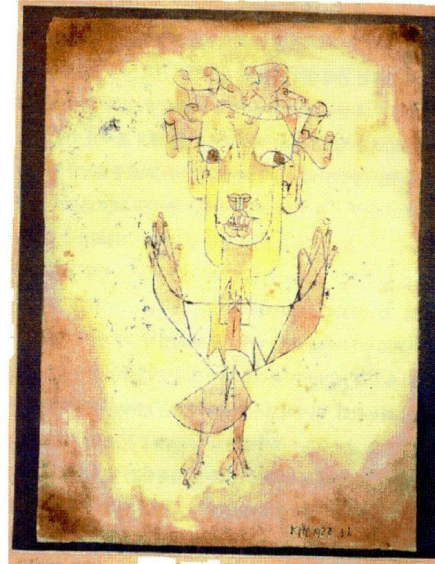
(도판9) 로비스 코린트 「대순교」



(도판10) 조르주 루오 「예수 그리스도」



(도판11-1) 에밀 놀데, 「그리스도의 매장」



(도판11-2) 파울 클레, 「새로운 천사」



(도판11-4) 루돌프 콜비츠「하느님의 사람」



(도판12) 장발, 「김대건 신부」

참 고 문 헌

<성 서>

국제 가톨릭 성서 공회. 「해설판 공동번역 성서」, 도서출판 일과 놀이, 1995

<단행본 및 외국 문헌>

김민수, 어효선. 「표준국어사전」, 서울 : 교학사, 1988

김준호. 「공예염색 입문」, 서울 : 조형사, 1995

서경식. 「청춘의 사진」김석희 역, 서울 : 창작과 비평사, 2002

송변수. 「염색의 실제」, 서울 : 미진사, 1991

월간미술. 「세계미술용어사전」, 서울 : 중앙일보사, 1989

이제민. 「예수는 정말 부활했을까?」서울 : 바오로 딸, 2003

이제민. 「우리가 예수를 찾는 이유는?」서울 : 바오로 딸, 2001

차동엽. 「가톨릭 신자는 무엇을 믿는가 2」, 서울 : 에우안젤리온, 2003

홍진경. 「베로니카의 수건」서울 : 도서출판 예경, 2001

게라두스 반 데르 레우후. 「종교와 예술」, 윤이흠 역, 서울 : 설화당, 1988

네이던 노블러. 「미술의 이해」, 정점식, 최기득 역, 서울 : 도서출판 예경, 1993

메릴린 거스틴. 「사순절의 기쁨」, 김명 역, 서울 : 바오로딸, 2001

미셸 크리스티안스. 「성서의 상징 50」, 장익 역, 서울 : 분도 출판사, 2002

M. 엘리아데. 「상징, 신성, 예술」, 박규태 역, 서울 : 서광사, 1991

안셀름 그윈. 「부활의 기쁨 100배 맛보기」, 정하돈 역, 서울 : 분도 출판사

2002

<학위논문>

이연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인들의 부활”, 서강대학교 대학원, 1997

오현숙. “종교적 직관에 의한 섬유 꼴라주 표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7

유승문. “예수 부활 신앙의 정체”,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1980

채현주. “예수 부활 사건의 의미 이해”,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00

<기 타>

가톨릭 교리신학원 특강<교회미술다시보기>中

-제 9강의 : 「현대 그리스도교 미술의 현황」김혜림 (경희대, 인하대 강사)

-제13강의 : 「한국의 성(聖)미술」김형주 (가톨릭 미술가협회 부회장)

인터넷- 네이버 두산세계대백과

CHO CRAFT' 염색기법 안내책자

ABSTRACT

Renewal

- A Study on the Modern Form Expression of Resurrection Message -

Choi, Ji Young
Dept. of Crafts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generation course of fine art has close relation with religious sensitivity.

The primitives of the Old Stone Age started to draw the cave mural of incantational character into the form of nature worship. And, in ancient society also, as all the social elements were expressed into religious form, all the cultural elements such as the Pyramid of Egypt and the shrine of Greece etc. were made into works with religious sensitivity. It can be said that Western fine art was unfolded centering around the religious to be Christianity and that European fine art existed for Christianity from the beginning. It can be said that most works of fine art showed the character of fine art of religion except the pure fine art after modern times or the flowers and birds and

landscape painting of the Orient etc.

The goal of fine art of Christianity which tried to glorify the glory of god, play the role of fine art on the map for illiterate populace and sublimate the religion feeling of believers is being shown diversely in a broad sense through a little more free form and creative method by being connected with the work world of artists now.

In this study, this researcher tried to express the form of ego to be born newly through the resurrection of Jesus to be the basis of Christian faith by formalizing it. This researcher showed which meaning the resurrection in me gets to have with diverse and symbolical materials, after meditating the Biblical and doctrinal meaning of resurrection and finding the current meaning of resurrection.

The meaning of resurrection faith in me is the earnest wish to want to be born newly, that is, renewal. This wish gets to be achieved by obtaining the power and courage to be able to lead new life through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Jesus.

In this study, this researcher tried to express the meaning of resurrection to try to show in my work through formal, color, and ceremonial symbol after knowing the meaning of Christian fine art which has formed the basis of Western fine art history and understanding the Biblical and religious meaning of resurrection which is the center of this study through the correction between religion and

fine art so as to make above contents into form.

Lastly, this researcher will complete this study with the main dyeing technique and reactive dyestuff used over the whole of works and the explanation for the manufacture of work.

I hope that Christians to live today may know the true meaning of resurrection of Jesus and that the meaning may be sublimated in the life of each one by my this work earnestly.